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Male Postal Delivery Worker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홍성남

부교수 성미애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ster : Seong Nam Hong

Associate Professor : Miai Sung

◀ 목 차 ▶

I. 문제제기

II.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job characteristics on married male postal delivery workers' overall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263 married male postal delivery workers between October 1st to 21st, 2008, and analyzed the data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stal workers earned a low level of income, and their quality of health was not good relative to their age. They had severe work-family conflict, but could support and communicate with colleagues well. Second, even though they felt little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in lives, they moderately satisfied with everyday lives. Third, 43% of their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personal, family, and job related variables. Levels of work-family conflict ($\beta = -.31^{***}$), work support with colleagues ($\beta = .25^{***}$), family sharing time ($\beta = .14^*$), and health ($\beta = .12^*$) were especially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ir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married male postal delivery worker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일-가족갈등(work-family conflict), 동료 간 업무지원(work support between colleagues), 가족공유시간(family sharing time), 건강(health)

Corresponding Author : Miai S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8 Fax: +82-2-3668-4188 E-mail: eliza_s@kno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문제제기

우편사업은 18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가 정보화의 전진기지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는 우편사업의 성공은 인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황중연, 박광진, 김형묵, 배명구, 1989), 실제 우편배달직은 단순근로의 성격을 갖는 중노동인데다 제한적 인력수급으로 인한 인력충원 부족과 낮은 보수 체계로 인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평일의 근로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인 일반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 달리 빠르지는 이른 아침 출근부터 저녁 늦은 시간(06:40~20:00시 이후)까지 배달 후 정리 작업이 계속되며, 연말연시 및 선거기간, 각종 공과금 납부시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까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김상욱, 2001; 손효숙, 2007; 전국은, 1992)되고 있으며, 2007년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통상 우편물 배달 물량은 4,942백만 통을 기록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2008. 6. 30일자). 이처럼 우편집배직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가족-직업세계 간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상욱, 2001; 신신호, 2005; 손효숙, 2007; 전국은, 1992 등)은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도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세계나 삶의 질을 생각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의 맥락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며, 이러한 변수들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만족도를 통해 개인-가족-직업세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생활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의 정서적 차원 외에 삶 전반에 대한 판단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여(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 개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개인-가족-직업세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세 영역의 변수들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편집배직의 경우 단순노동직의 특성과 공무원직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보여주는 의미는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연령, 개인자유시간, 건강), 가족특성 변수(자녀유무, 배우자취업여부, 가족공유시간, 일-가족갈등), 직업특성 변수(근무시간 유통성, 평일근무시간, 동료 간 업무지원, 직장 내 의사소통)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제반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처럼 본 연구는 단순근로의 중노동에 가까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특성을 갖는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세계 및 생활만족도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전문·관리직, 사무직 중심으로 남성의 생활세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를 개인, 가족, 직업세계와 연결해서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교육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단순히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이들 가족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II.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고찰

1. 개인특성 변수

교육수준은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유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하고(성미애, 1999),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므로(Harris & Cole, 1980, p. 38),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생활에 대한 적응 및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먼저,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 간 긍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김영선, 2003; 박미석, 1996; Campbell et al., 1976)은 높은 교육수준은 소득과 밀접한 관

런이 있고 직업만족도도 높으며, 교육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에 갖는 주관적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방하남, 2000). 한편,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들(서정아, 한경혜, 1998; Barnett, Marshall, & Pleck, 1992)은 소득이 통제되면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진다고 밝혔다.

월평균소득은 노동을 통해 개인이 얻는 보상으로, 소득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김명자, 1989; 박미석, 1996; 서정아, 한경혜, 1998; Campbell et al., 1976) 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 경우 그들의 직업역할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허선자, 1992). 또한 낮은 소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낮은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한경혜, 1998; Campbell et al., 1976)도 있다.

연령은 생애 과정 관점에서 한 개인의 삶의 가치와 경험과 배경 등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사회변화 모두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경우 어떠한 사회변화에도 대처할 적응력은 높으나 수행하고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은 경우는 가정 및 사회가 요구하는 과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한 과업을 잘 수행했는가 여부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서정아, 한경혜, 1998)가 있는 반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감이 특정연령이나 특정기간에 관련되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 연령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요인, 가족적 배경, 자신이 처한 세대의 위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연구(김명자, 1989)도 있다.

개인자유시간은 개인이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시간을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시간(Rice & Turker, 1986)으로, 개인자유시간은 조직이나 타인에게 통제받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자유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건강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WHO 현장)으로,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김명자, 1989). 즉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 우울증을 경험하기 쉬우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경우 주로 육체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직업을 지속시키는 기본 요건이 된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가족특성 변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가족을 형성하고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에 과도한 관심과 비용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부담의 측면도 클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부모의 지위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게 되어 비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하지만 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더 큰 유능감과 만족감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김소영, 옥선화, 2000; 차승은, 한경혜, 2006; Barnett et al., 1992)와, 자녀가 없는 경우 직업갈등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부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서정아, 한경혜, 1998; 최희경, 1995; Marks, 1996)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동렬, 1995; Barnett et al., 1992)도 있다.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남성의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배우자의 취업은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변인으로, 부부 간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저하된다는 연구결과(조원지, 2001)가 있는 반면, 배우자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의 가정 내 역할분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배우자의 취업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서정아, 한경혜, 1998;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숙현, 1998; 최희경, 1995; 홍성래, 2001)도 있다. 업무시간이 길며,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우편집배직 공무원직의 특수성에서 볼 때,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공유시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원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이기영 외, 1994),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란혜, 2000). 따라서 가족공유시간이 많을수록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가족갈등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 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족 모두가 증시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중요한 생활세계를 양립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면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성에게 일이란 사회 내에서 일차적 삶의 근거가 되며,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할 때도 기본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규범처럼 집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남성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일-가족이라는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직업특성 변수

근무시간 융통성은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로,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감은 직업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김영선, 2003; 서정아, 한경혜, 1998; 서혜영, 이숙현, 1999; 최희경, 1995)에서도 유연한 근무시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경우 주로 외근을 해야 하며,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융통성은 직업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일근무시간은 수입노동시간으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육체적 능력을 재생산하는 생리적 시간은 감소되면서 피로감을 초래한다. 또한 평일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이현아, 1994)에서도 직장생활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남성의 생리적, 사회적, 문화적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의 하락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가족-직업생활이 모두 중요한 이 시점에서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평일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동료 간 업무지원은 동료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 내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동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경쟁적일 때는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행연구(Turnipseed, 1994)에서도 동료 간 업무지원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냈다. 특히 우편집배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배달 업무는 독립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때의 논 상대가 되고 업무를 처리해 주는 등 동료 간 업무지원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료 간 업무지원 수준이 높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의미와 감정이 왜곡됨 없이 상대방과 공유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의미와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경쟁과 협조가 적당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직장 환경에서 동료 간 의사소통은 일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김상욱, 2001; 선신호, 2005; 손효숙, 2007). 따라서 직장 내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1) 조사대상자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우정사업본부 충청체신청 관할의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우편물 배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으로, 충청체신청 산하 11개 총괄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혼남성 263명이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유형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제한하였다.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족유형은 단순히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공유시간이나 일-가족갈등 등 가족 간 역할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적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가족유형을 핵가족으로 한정하였다.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사노동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비율을 살펴본 가사분담율은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119명)에는 평균 32.10%, 배우자가 비취업인 경우(144명)에는 평균 29.11%를

〈표 1〉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N = 263)

변수	구분	빈도(%)
가사분담율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	119 (평균분담율: 32.10%)
	배우자가 비취업인 경우	144 (평균분담율: 29.11%)
배우자수입	100만원 이하	148(56.31)
	101-200만원 이하	102(38.65)
	201만원 이상	13(5.04)
	평균	117만원
배우자 교육수준	초대졸·대졸 이상	51(19.39)
	고졸 이하	212(80.61)
근무년수	10년 이하	121(46.00)
	11-20년 이하	111(42.21)
	21년 이상	31(11.79)
직급	10-9급	116(44.11)
	8-7급	85(32.32)
	6급 이하	62(23.57)
근무지역	시 지역	157(59.70)
	읍·면지역	106(40.30)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우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사분담율이 조금 높아지긴 하였지만 그 폭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은 117만원이었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과반수(80.61%)가 고졸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근무년수는 거의 반수(46.00%)가 10년 이하였으며, 직급은 9급 이하가 거의 반수(44.11%)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과반수(59.70%)는 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자료수집방법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충청지역에 근무하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9월 8일부터 2008년 9월 17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고, 예비조사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답형의 질문(예: 가족구성, 개인자유시간, 가족공유시간 등)에 대해서는 응답에 어려움을 보여 본조사용 질문지에서는 급간으로 수정하였으며, 동료 간 업무지원 척도의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5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충청지역에 근무하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21일까

지 총 44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98부를 회수(회수율 90%)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미혼자 78부와 부실 기재한 질문지 57부를 제외한 263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구성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Campbell 외(1976)의 정의에 따라 현재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주관적 만족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로 정의하였으며, 이들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12문항에 걸쳐 현재 생활에 대한 대조적인 주관적 평가 내용의 용어(예: 괴로운-즐거움, 공허한-충만한 등)가 양 극단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 12점에서 84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이었다.

2) 개인특성 변수

개인특성 변수로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연령, 개인자유시간, 건강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연령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개인자유시간은 30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이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의 급간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건강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내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라는 단일문항으로 평가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3) 가족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로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자녀유무, 배우자취업여부, 가족공유시간, 일-가족갈등을 살펴보았다. 자녀유무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배우자취업여부는 예, 아니오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가족공유시간은 거의 못 본다,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의 급간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일-가족갈등 척도는 Higgins와 Duxbury(1992)가 개발한 일-가족갈등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추어 구성하여 사용한 김영선(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 중 긍정적으로 묻는 문항(문항번호 3번: 직장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시간조절을 잘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역 부호화하여 계산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었다.

4) 직업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는 근무시간용통성, 평일근무시간, 동료 간 업무지원, 직장 내 의사소통으로 살펴보았다. 평일근무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외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근무시간 용통성 척도는 선행연구들(이기영, 구혜령, 1992; 조은숙, 1997)을 참고한 김영선(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7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용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였다.

동료 간 업무지원 척도는 선행연구(선신호, 2005)에서 사용한 동료 간 업무지원에 관한 13개 문항 중 신뢰도가 검증된 5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간 협동적 업무지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였다.

직장 내 의사소통 척도는 선행연구(선신호, 2005)를 토대로 구성된 7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7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신뢰도계수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 및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변수의 전반적 경향

(N = 263)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개 인 특 성 변 수	교육수준	초대졸·대졸 이상 고졸 이하	53(20.10) 210(79.90)	
	연령	130-200만원	125(47.53)	228만원 64.49
		201-300만원	124(47.15)	
301만원 이상		14(5.32)		
변 수	개인자유시간	30세 미만	29(11.03)	39.3 7.36
		30-40세 미만	106(40.30)	
		40-50세 미만	103(39.16)	
가 족 특 성 변 수	건강	50세 이상	25(9.51)	0.86
		30분-1시간 미만	141(53.61)	
		1-2시간 미만	96(36.50)	
직 업 특 성 변 수	일-가족갈등	2-3시간 이상	26(9.89)	3.32 0.78
		건강한 편	32(12.17)	
		보통인 편	128(48.67)	
가 족 공 유 시 간	자녀유무	나쁜 편	103(39.16)	1.35
		유 무	209(79.43) 54(20.57)	
		배우자취업여부	유 무	
직 업 특 성 변 수	근무시간용통성	1시간 미만	123(46.80)	3.54 4.78
		1-2시간 미만	97(36.90)	
		2-3시간 이상	43(16.30)	
직 업 특 성 변 수	평일근무시간	12시간 미만	110(41.83)	2.41 4.24
		12시간 이상	153(58.17)	
		동료 간 업무지원		
	직장 내 의사소통		3.11 4.5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의 전반적 경향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과반수(79.90%)가 고졸이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은 평균 228만원으로,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4인 이하의 가구인 경우 4,276,642원으로 보고(통계청, 2009)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39.3세였으며, 과반수(53.61%)가 하루에 1시간 미만의 개인 자유시간을 갖고 있었다. 건강에 대해서 거의 반수(48.6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9.16%나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9.3세인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육체적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있다.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가족특성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과반수(79.43%)가 자녀가 있으며 평균 자녀수는 1.35명이었다.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도 45.25%를 차지하였고, 거의 반수(46.80%)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가족과 공유시간을 갖고 있었다. 일-가족갈등은 평균 3.54점으로, 중간 이상의 일-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직업특성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근무시간 융통성은 평균 2.41점으로,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았다. 과반수(58.17%)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통계청, 2007)에 따르면, 정규근로자의 경우 하루 평균 8.77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과중하다. 동료 간 업무지원은 평균 3.86점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비교적 업무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장 내 의사소통은, 평균 3.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직장 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균 4.68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각 문항별 생활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문항에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단순노동직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문항과 '고된 - 편안한' 문항에서는 중간 수준 이하로 만족하고 있었다.

〈표 3〉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N = 263)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괴로운 - 즐거운	4.77	1.25
공허한 - 충만한	4.46	1.22
실망스러운 - 보람있는	4.76	1.33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3.98	1.39
지루한 - 재미있는	4.58	1.38
좌절스러운 - 희망찬	4.81	1.36
외로운 - 친구가 많은	5.10	1.43
쓸모없는 - 가치있는	5.16	1.20
구속된 - 자유로운	4.83	1.49
고된 - 편안한	3.93	1.60
불행한 - 행복한	5.12	1.33
불만족스러운 - 만족스러운	4.66	1.41
생활만족도	4.68	1.04

3.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를 43%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는 일-가족갈등($\beta = -0.31, p < .001$), 동료 간 업무지원($\beta = 0.25, p < .001$), 가족공유시간($\beta = 0.14, p < .05$), 건강($\beta = 0.12, p < .05$) 순서로 영향을 받았다. 즉 일-가족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동료 간 업무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는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중추적 신경조직으로 일컬어지는 우편분야에 종사하는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가족, 직업생활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 263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졸의 학력을 가지며, 도시 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소득에 훨씬 못미치는 소득수준을 보이는 중년이

〈표 4〉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 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직업특성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N = 263)

관련변수	B	β	t	p
교육수준	-1.22	-.04	-0.80	.42
월평균소득	-.00	-.00	-.03	.98
연령	.11	.06	1.03	.30
개인자유시간	1.04	.07	1.36	.18
건강	1.00	.12	2.34*	.02
자녀유무	-.09	-.00	-0.06	.95
배우자취업여부	1.25	.05	.83	.41
가족공유시간	1.93	.14	2.49*	.01
일-가족갈등	-.81	-.31	-5.59***	.00
근무시간 융통성	.18	.06	1.06	.29
평일근무시간	-1.00	-.06	-1.17	.24
동료 간 업무지원	1.08	.25	4.20***	0.00
직장 내 의사소통	.26	.10	1.61	.11
상수	38.82		4.36	0.00
R ²	.43			
Adjusted R ²	.40			
F	14.38**			

*p < .05 ***p < .001

다. 장시간 근무로 인해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거의 없으며, 건강 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9.3세라는 평균 연령에 비추어 볼 때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은 등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직무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족특성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정 내 자녀는 보통 1명 내지 2명이며, 장시간 업무로 인해 가족과는 하루 1시간도 공유하지 못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 과반수이나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매할 소득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가족갈등을 경험한다.

직업특성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배달이라는 대민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거의 없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업무의 시간적, 육체적 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 동료 간 업무지원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의사소통도 중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에게 건강은 단순 육체노동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예방 차원의 정기검진이나 건강유지 프로그램이 정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9조)에 규정된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에 비교해서 보면, 1일 12시간 이상이라는 장시간 근로로, 직업역할 부분에 대한 시간적, 육체적 부담이 과중하여 개인-가족-직업세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균열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은 비록 삶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활은 고되지만, 보람을 갖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해서 보통 수준으로 만족한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각 영역은 심하게 균열되어 있지만, 우편집배직을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안정된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만족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상욱, 2001; 선신호, 2005; 손효숙, 2007)처럼, 공무원직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신분에 높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관리직의 경우 직업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제한된 자리를 두고 동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나 단순노동직의 경우 승진, 성취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이직의 기회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만족(김상욱, 2001)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가족-직업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힘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가족갈등을 경험하면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보통 수준의 생활만족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성과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한인섭, 2002)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 집단은 위기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생활만족도 이면에 놓여있는 삶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특성, 가족특성, 직업특성 변수가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를 43%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 변수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일-가족갈등 수준, 동료 간 업무지원 수준, 가족공유시간, 건강 순서이다. 즉 일-가족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동료 간 업무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공유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은 기혼남성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하는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경우 가정생활에 투입하는 시간 및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은 곧 두 영역 간 갈등을 초래하여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김소영, 옥선화, 2000; 김진희, 2002; 최희경, 1995; 한경혜, 1998). 특히 조사대상자의 거의 과반수가 맞벌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족 갈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활만족도는 더 저하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동료 간 업무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동료 간 업무지원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김상욱, 2001; 선신호, 2005; 손효숙, 2007)를 지지한다. 비록 배달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나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지원해주고 의논할 수 있는 동료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동료 간 업무지원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가족공유시간은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강란혜, 2000), 기혼

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는 선행연구결과(김명자, 1989)처럼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경우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들의 경우 단순노동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강은 직업지속의 주요 근거가 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처럼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은 단순노동직 근로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직이라는 직업 안정성에 높은 의미를 두면서 생활에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시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경제적 수준이나 인적 자원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이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위기 집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직업의 안정성 보장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일-가족 갈등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동료 간 업무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가족공유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개인-가족-직업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에 투여할 시간 및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일 배달할 우편물 정리 시간 및 배달 업무 후 당일 배달할 우편물이나 전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기록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료 간 업무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제 도입보다는 팀별 작업체제나 협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화법 및 상호작용 관련 가족생활교육을 직장 내 교육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편집배직은 주로 실외에서 수행되는 단순노동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건강은 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건강 검진은 물론,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지원, 보급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적, 성과적 근무환경보다는 협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상욱(2001). 우체국 집배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고용 형태 및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유형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김영선(2003).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2002).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전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2006). **2006 정보통신백서**. 서울: 정보통신부.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방하남(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23(s), 133-154.
 서정아, 한경혜(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65-177.
 서혜영,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신신호(2005). 내부마케팅을 통한 우체국 내부 고객만족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효숙(2007).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우체국 집배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정사업본부. 2008년 6월 30일 보도자료. <http://www.koreapost.go.kr>
 이기영, 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이숙현(1998).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갈등. **연세여성연구**, 3, 173-194.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인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국은(1992).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사기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원지(2001). 아버지역할수행, 직업역할수행, 및 직업 역할에 의한 아버지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차승은, 한경혜(2006). 남편의 가족 역할 점유와 건강 문제.
한국인구학, 29(2), 167-194
 최희경(1995).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관계: 직장-가정갈등
 과 개인차변인, 가정변인, 직장변인의 관계.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07). **200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09). **2009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조사**. 대전: 통
 계청.
 한경혜(1998). 중년기 여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한인섭(2002).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
 도 비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4), 27-41.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
 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성례(2001). 기혼남성의 가족·직업 역할 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
 구논문.
 황준연, 박광진, 김형묵, 배명구(1989).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신
 규우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Greenhaus, J. H., & Beutell, N. 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Harris, D. K., & Cole, W. E.(1980). *Sociology of Aging*.
 Boston: Houghton Co.
 Marks, N. F.(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7-33.
 Pavot, W., & Diener, E.(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Turnipseed, D. L.(1994).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Work Environment Variables and Moderators
 on the Burnout Syndr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9), 782-800.

접 수 일 : 2010년 5월 14일
 심사시작일 :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9월 4일

<부록 1>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N = 263)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11	1											
3.	-0.19**	0.42**	1										
4.	-0.02	-0.05	-0.05	1									
5.	0.04	0.07	-0.08	0.05	1								
6.	-0.07	0.10	0.23 *	0.02	-0.07	1							
7.	-0.04	0.56**	0.05	0.02	0.07	0.07	1						
8.	0.01	-0.07	-0.25	0.32**	0.08	0.01	0.02	1					
9.	0.10	-0.06	-0.07	-0.17**	-0.04	0.07	-0.11	-0.27**	1				
10.	0.10*	-0.02	0.04	0.30**	0.02	-0.04	0.06	0.27**	-0.38**	1			
11.	0.07	-0.02	-0.01	-0.23**	-0.03	0.04	-0.07	-0.21**	0.38**	-0.33**	1		
12.	-0.00	-0.06	-0.11	0.15**	0.30**	0.04	0.03	0.25**	-0.03	0.20**	-0.14*	1	
13.	-0.04	0.01	0.11	0.17**	0.09	0.03	0.05	0.23**	-0.20**	0.39**	-0.28**	0.47**	1

1. 교육수준, 2. 월평균소득, 3. 연령, 4. 개인자유시간, 5. 건강, 6. 자녀유무, 7. 배우자취업여부, 8. 가족공유시간, 9. 일-가족갈등,
 10. 근무시간 율통성, 11. 평일근무시간, 12. 동료 간 업무지원, 13. 직장 내 의사소통

* 가변수 처리

- 자녀유무: 무자녀인 경우 0, 유자녀인 경우 1

- 배우자 취업여부: 배우자 비취업인 경우 0, 배우자 취업한 경우 1

*p < .05 **p < .01